

제6절 천주교

1. 울진의 천주교 개요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1594년(선조 27) 포르투갈 신부가 임진왜란 때 일본의 종군신부로 입국하여 전파한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이어 1777~1779년에 걸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천진암과 주어사 등에서 이벽·정다산·권철신 등에 의해 천주교 교리에 관한 연구활동이 진행되었으며,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고 천주교 관련 서적을 도입해 와서 신앙공동체를 형성한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공식적인 최초의 천주교회 창립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후 1791년 신해박해를 시작으로 1801년 신유박해와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오박해, 1866년 병인박해 등의 대박해를 받으며 선교의 어려움을 겪다가 1882년 한미수호조약과 1886년 한불수호조약 등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1831년 조선교구가 설립되었으며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이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2019년 말 현재 전국 16개 교구[북한 소재 2개 교구 제외], 본단 1,756개소, 공소 709개소로 발전하였고 성직자는 추기경 2명을 포함하여 주교 42명, 신부 5,480명, 수도자 169개 수도회 11,75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신 자수는 5,914,669명으로 총인구수 대비 11.1%의 거대한 종단으로 성장하였다.

이곳 울진에 문헌상 처음으로 신자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충청도에 서 피난 온 김강이(시몬), 김타대오 형제 가정이 머루산 신자촌에 살다가 울진으로 이사 와서 살았다고 전해진다. 그 후 신자들이 살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6·25 전쟁 후인 1957년 5월 당시 춘천 교구장인 구인린 주교의 인준으로 울진읍·북면·금강송면·근남면·매화면·기성면·평해읍·온정면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삼척본당 소속의 울진 공소로 설립되었다. 1958년 5월 24일에 울진 공소는 본당으로 승격되었으며 본당 주보는 ‘성 요셉’이다.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74번지의 땅 1천 3백 평 위에 성당건물이 신축되었고 아일랜드의 성 골롬바노 전교회 소속인 ‘정 레오’ 신부가 초대 본당신부로 부임하여 1960년 4월 중순까지 사목하였다,

울진 성당 외에도 후포천주교회[후포면 삼울리 73], 울진천주교회[금강송면 삼근리], 울진천주교회 평해공소[평해읍 평해리 779], 죽변천주교회[죽변면 죽변리 195]가 있다.

■ 울진 천주교 연혁³²³

-2대 본당 주임으로 1960년 4월 제임스 머피(야고보) 신부가 부임하였는데 그의 요청에 의하여 구호품을 받기도 했다.

-1961년 7월에는 울진본당 후포공소 건축을 완공하고 춘천 교구장 ‘퀸란’ 주교와 성직자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축성식을 하였다.

-1963년 춘천교구 골롬반회 소속 오 미카엘 신부가 주임신부로 부임하였다.

-1965년에 춘천교구 소속에서 원주교구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골롬반회 소속 엄 제랄드 신부가 계속해서 본당을 맡아 사목을 하였으며,

-1968년 9월 12일 춘천교구 소속 노세현 신부가 제5대 본당 주임신부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이는 울진 본당이 최초로 맞이하는 방인 신부이다.

-1969년 5월 29일 울진본당은 대구교구로부터 안동교구가 분리, 설정됨에 따라 다시 안동교구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1969년 6월 제6대 주임신부로 최동호 아타나시오 신부가 부임하였다.

-1970년 7대 주임신부로 나성도(아르멜도) 신부가 부임하였다.

-1974년 1월 6일 울진 본당 ‘해성친목회’ 회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배에서 굿을 비롯한 어떠한 미신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하에 해성1호를 건조하였으며 1976년 1월 15일 울진 본당의 ‘해성친목회’를 ‘해성협업회’라 이름을 바꾸어 활동하였다.

-1977년 1월 27일 제8대 주임신부에 배세영(마르셀로) 신부가 부임하였다.

-1977년 12월 29일 제9대 신부로 조창래(빈첸시오) 신부가 부임하였다.

-1978년 4월 1일 허진섭(루도비코) 신부가 제10대 본당신부로 부임했다.

-1978년 10월 29일 울진본당의 ‘해성협업회’가 65톤급 철선 ‘해성3호’를 건조하여 충무항에서 진수식을 가졌다.

-1980년 10월 15일에 본당 최초의 브레시디움 「인류의 모후」가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7일에 본당 주보인 「가톨릭 울진」이 발행되었다.

-1981년 11월 18일 후포 신용협동조합이 창립되었다.

-1984년 1월 9일 제11대 주임신부로 도광주(요한) 신부가 부임하였다.

-1984년 5월 18일 성전건립 추진 위원회가 발족하였으며,

-1985년 9월 10일 성당 신축 기공식을 했다.

-1985년 7월 6일 영덕·울진성당 ‘바다의 별’ 꾸리아가 설립되었다.

-1986년 6월 29일 울진성당 건물을 준공하고 10월 9일 30여 명의 신부와 900여 명의 신

323. 울진천주교인 최기탁이 자료를 제공했다.

자가 모인 가운데 ‘두봉’ 주교의 주례로 올진성당 봉헌식을 올렸다.

신축된 올진 성당과 사제관은 기공식을 가진 지 13개월 만에 완공되었으며 총 957.05㎡ 규모로 본당 신자들의 성금 2천 4백만 원, 타지 신자들의 성금 1천 2백만 원, 자체 수입기금 6백만 원, 안동교구 보조금 1억 4천만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다.

-1987년 6월 올진성당 수녀원을 신축하였다.

-1987년 8월 죽변 구 공소를 철거하였다.

-1987년 10월 23일 성빈센트 드 뿔 자비의 수녀회 소속 수녀 3명이 본당에 파견됨으로써 올진지역의 천주교 전파는 더욱더 왕성한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87년 11월 29일 죽변 공소 신축 기공식을 했다.

-1988년 4월 25일 죽변 공소를 신축하고 두봉 주교 집전으로 봉헌하였다.

-1988년 5월 5일 후포공소에 부산의 여자 신자가 익명으로 성모상을 구입해 주어 설치하고 성모의 밤 행사를 하였으며 9월 올진 본당 소속 후포공소에 ‘성 빈센트 뿔 자비의 수녀회’에서 분원을 설치하고 수녀를 파견하여 활동하였다.

-1989년 2월 29일 올진 성당에서 ‘한마음 한몸’ 운동으로 본당 69명, 후포공소 19명이 헌혈하였으며 이후로도 5월 20일 83명 5월 26일 144명이 헌혈에 참여하였다,

-1990년 3월 25일 올진 본당에서 동해지구 아치에스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1년 7월 5일 안동교구장 박석희 주교가 후포 공소를 본당으로 승격하고 초대 본당신부로 공한영 고스마 신부가 부임하였다.

-1991년 12월 29일 올진 성당 신자들이 핵폐기물 처분장 설치반대 농성을 하였다.

-1991년 12월 30일 전경이 성당에 난입하였다.

-1991년 12월 31일 핵폐기장 설치 반대 관련 동해지구 사제단이 모임을 하였고 사제단 성명을 발표하였다.

-1992년 1월 2일 올진 핵발전소 추가 건설 및 핵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올진 주민들의 반대 운동과 관련하여 안동교구 사제단이 미사를 드리고 주민들의 뜻을 고려해야 함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92년 1월 3일 핵폐기장 설치반대 관련 안동교구 사제단 입장 발표 및 경찰청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발표하였다.

-1993년 9월 20일 후포 본당 성당 봉헌식을 개최하였다.

-1993년 12월 16일 북면 공소 건립 부지구입했다.

-1994년 1월 18일 방인 사제인 정희완 신부가 제12대 본당 주임신부로 부임하였다.

-1996년 10월 11일 제13대 주임신부로 정일 가브리엘 신부가 부임하였다.

-1997년 10월 19일 꾸리아 옥외행사 및 자연보호 활동하였다.

-1998년 5월 4일 올진군 북면 부구리에서 북면 공소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1999년 10월 3일 울진군 북면에 북면 준 본당, 지금의 「북면본당」을 신설하고 서울 교구 소속 이기정 신부가 부임하였다.

-1999년 2월 5일 제14대 주임신부로 이상복 바오 신부가 부임하였다.

-2003년 7월 8일 제15대 주임신부로 권중희 베드로 신부가 부임하였다.

-2003년 12월 10일 울진본당 서면 공소 봉헌식을 했다.

-2005년 4월 24일 울진 북면 준본당,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2007년 7월 13일 제16대 주임신부로 이영길 가롤로 신부가 부임하였다.

-2009년 7월 18일 제17대 주임신부로 김한모 바오로 신부가 부임하였다.

-2009년 9월 2일 지역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구 사제관의 위치에 불우이웃을 위한 무료급식 장소인 ‘나눔의 집’을 마련코자 신자들의 동의를 얻어 ‘나눔의 집 건축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요 기금 확보를 위하여 서울 등지 성당에 출장, 대게 판매, 신부님의 출장 모금 강론, 신자들의 헌금, 한수원 지원금 등으로 3억 5천만 원의 기금을 확보하였다.

-2010년 5월 9일 나눔의 집 건축물 신축 기공을 하고, 이듬해 9월 18일 ‘나눔의 집’ 축복식을 거행하였다.

-2012년 9월 5일 제18대 정상업 바오로 신부가 부임하였다.

-2013년 2월 17일 본당 신앙학교를 개설하였다.

-2013년 9월 29일 권혁주 요한 크리스소스토모 주교가 사목 방문하였다.

-2014년 5월 1일 죽변 공소 김용해 미카엘 선교사가 부임하였다.

-2014년 8월 15일 ‘2014아시아청년대회[교황방문, 대전]에 청소년 8명 참가하였다.

-2015년 2월 5일 제19대 안상기 미카엘 신부가 부임하였다.

-2016년 3월 14일 울진 베네딕도 수도회 파티마 연수원 교육관에서 성경학교를 시작하였다.

-2017년 3월 8일 울진지역 3개 본당 사순 피정을 시행하였다[임준기 다미아노 신부지도].

-2017년 9월 1일 제20대 김원현 베드로 신부가 부임하였다.

-2017년 9월 17일 영덕에서 동해지구 친교의 날 행사를 9개 본당이 모여 실시하였다.

-2018년 1월 8일~11일까지 성경공부반에서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시행하였다.

-2018년 3월 11일 젊은 자매들 단체인 ‘성모성심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최윤실(아나스타시아) 자매를 선출하였다.

-201년 5월 24일 본당 설립 60주년 감사 미사를 봉헌하고 『울진 본당 60년사』 화보를 발간하였다.

-2018년 12월 14일 젊은 형제들의 단체인 ‘성 요셉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으로 김동현(가브리엘) 형제를 선출하였다.

-2019년 5월 26일 안동 시민 체육관에서 열린 ‘안동교구 설립 50주년’ 행사에 참여하였다.

-2019년 11월 17일 성당 현관 계단을 증축하였다.

-2020년 3월 15일 성당 내부 수리[전면 벽 도자공사 및 천장] 및 제대 교체작업을 하였다.

김병희